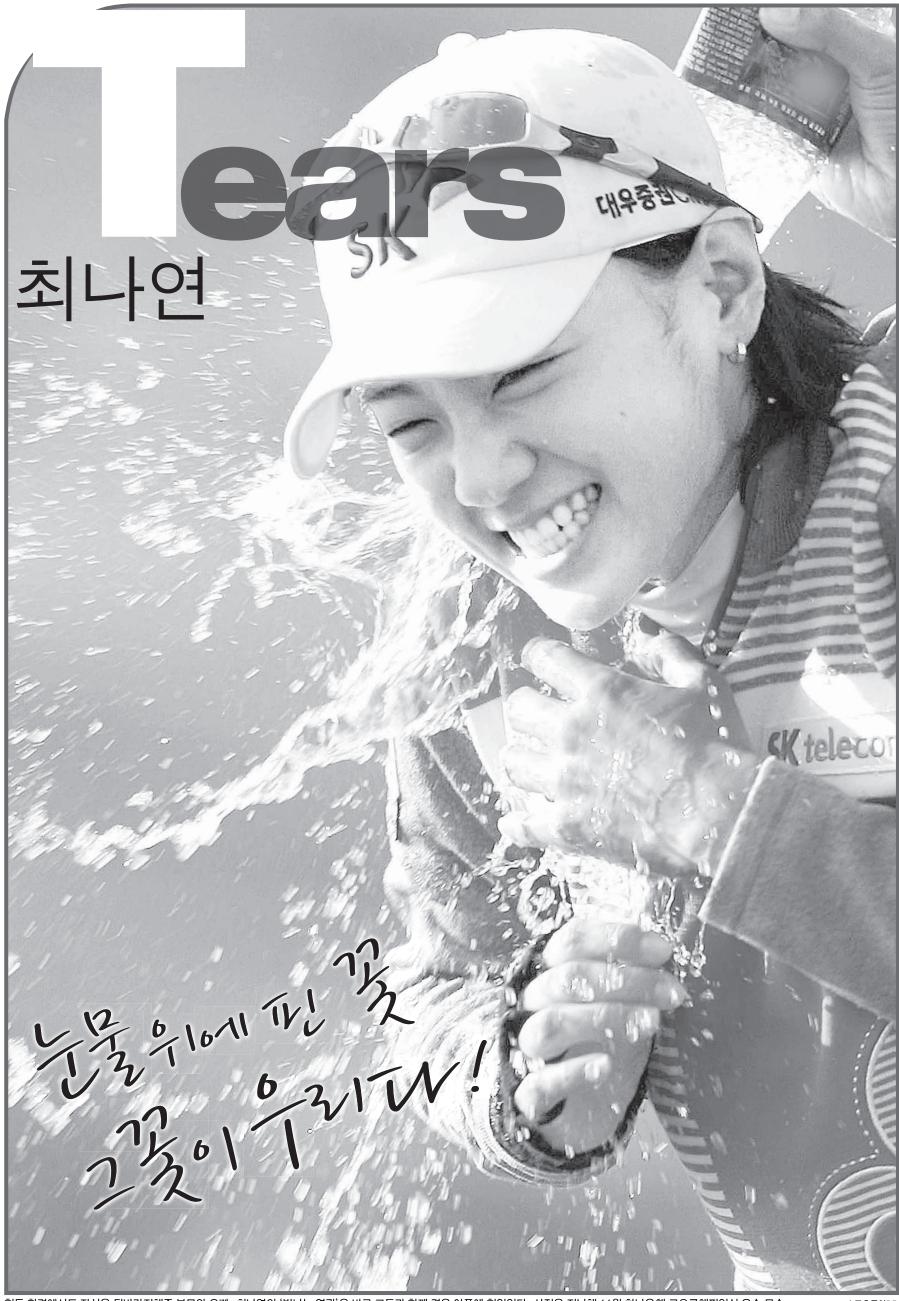
창간특집 | G세대, 그들의 아픔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부모와 오빠. 최나연의 '빛나는 영광'은 바로 그들과 함께 겪은 아픔에 힘입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코오롱챔피언십 우승 모습.

스포츠동아DB

G세대 영광, 그 뒤에는 베이비붐세대 부모들이…

삶이 치열했던 부모들, 자식들에게 올인 기성용 부친, 조기유학 등 축구 뒷바라지 아이돌그룹 부모는 소속사와 긴밀 지원

스포츠동아가 G세대 스 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상당수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자신들의 부모를 꼽았다. 그 만큼 G 기성용과 부친 기영옥씨 세대 스타의 성장과 영광



뒤에서 부모들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한 셈이다. 또 G세대 스타들이 힘겨운 노력의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부모 역 시 노심초사하며 자식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고 뒷바라지,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G세대 스타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은 전쟁 이후 힘겨웠던 시기를 어린 나이에 감당했다. 또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청소년기와 청춘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가난의 질곡과 암울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셈이 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한창 가족을 이끌 시기에는 IMF 외환위기에 시달리며 또 다른 힘겨움의 터널을 온몸으로 지나

그래서 이들은 삶에 대한 치열함이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민주화의 작은 싹을 틔운 세대이기 도 해서 그 이전 세대보다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 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그 자신들 역시 부 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학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으로 오늘의 G세대 스타들을 키워낸 셈이다.

축구 스타 기성용은 축구 감독 출신인 아버지 기영옥 씨의 '선견지명'과 묵묵한 지원 아래 자라났다. 기 씨는 중학생이던 아들을 과감히 호주로 유학보내면서 선진 축구를 배우도록 했 다. 현재 스코틀랜드 셀틱FC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이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소통의 불편함없이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재능 도 거기서 출발했다.

이청용 역시 중학교 시절 FC서울의 유망주 조기교육 프로그램 에 합류했다. 부모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는 문근영은 연기 생활을 시작하기 전, 부모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연예 활동으로 얻는 수입의 일 정액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문근 영은 지금도 수입액의 일정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봉사로써 '공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 가요계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G세대 스타들 역 시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데뷔 전 연습생으 로 땀을 흘렸다. 이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파악해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소속사 역시 부모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 등을 갖추고 아직 여린 세대의 스타들을 보호하고 키워나 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날 위해 올인한 가족들…난, 성공밖에 길이 없었다"

신지애·최나연, 우린 아픈만큼 컸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G스타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리고 화려하다. 그러나 눈부실만큼 화려한 스타들이지만 이들 역 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한없 이 길고 어두웠던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G세대 골프 스타 신 지애와 최나연이 보낸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은 이들 20대 초반 젊 은이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의 힘으로 일군 세계 정복

"네가 거지야? 너같이 똑똑하고 잘난 놈이 왜 나 같은 놈 붙들 고 애걸을 하냐?"(책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 중)

돈 없이 골프를 시킨 신지애의 아버지 신제섭 씨는 골프연습 장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딸의 골프를 중



"엄마 목숨과 바꾼 훈련비 이 악물고 한 타, 또 한 타 나의 힘은 아픔입니다"

단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절, 골프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신지애는 골프를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기로에 섰다. 15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골프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지 만 그만둘 수 없었다.

"이 돈은 엄마의 생명과 바꾼 돈이니까, 한 타 한 타 칠 때마 다 신중하게 치길 바란다."(위 책 중)

단돈 1700만원. 어머니를 보내고 남은 전 재산 1900만원 중 2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아버지 신 씨는 딸의 골프훈련비로 썼다. 신지애는 더 이를 악물었다. 엄마의 생명과 맞바꾼 돈으 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가

정은 거의 풍비박산됐다. 그나마 월세로 살던 집도 내놔 기거 할 집마저 마땅치 않았다. 엄마와 함께 사고를 당했던 동생들 이 입원한 병실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간이침대에 몸을 눕히면 서 그렇게 골프를 계속했다. 그런 생활은 1년 넘게 계속됐지만 신지애는 힘든 내색도 없이 골프에만 전념했다.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신지애는 3년 뒤인 고교 2학년 때, 프로대회에 나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신지애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보고 싶었던 력하며 목표를 이뤘다는 감격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

● "골프 때문에 미쳤구나!"

"저만 여관방에서 재우고 아빠는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울컥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는 아빠가 왜 차에서 주무시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집이 힘들어졌다는 걸 알았다"

최나연에게 감춰졌던 아픈 과거다. 골프를 가르쳤던 여느 가 정처럼, 최나연의 부모도 '올인'을 택했다. 최나연의 부모는 친 지와 친구들에게까지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딸의 뒷바라 지를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있었지만 부모는 오직 딸의 골프에 만 매달렸다. 최나연은 "오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한다.

"오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모님이 저 가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이뤘다. 신지애의 비상이 비로소 이게만 신경을 쓰면서 오빠는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 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어린 최나연의 어깨는 무거웠다. 골프로 성공하지 못하면 모 마음과 그동안 내색하지 않은 설움,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노 든 게 산산조각이 되고 말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오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골프선수로 성공하는 것 이었다.

> "부담도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지 않았다. 그 러면서 더 이를 악물었다."

>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최나연은 근성이 강하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조금씩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차 돌처럼 강해졌다.